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중학생의 탄산음료 소비 형태에 미치는 영향

오 성 천 · *장 재 선*

대원대학교 제약식품계열,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he Effects of Food-Related Lifestyle on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Behavior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Sung-Cheon Oh and *Jae-Seon Jang*

Dept. of Food & Pharmacy, Daewon University College, Jecheon 390-702, Korea

*Dept. of Food & Nutrition, Gachon University, Incheon 406-79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iddle students' carbonated beverages selection and consumption behaviors depending on their food-related lifestyle. Data was collected from 307 middle students in Incheon region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food-related lifestyle showed that the average is more than 3.0, 0.800 in Cronbach alpha coeffici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bonated beverages preference according to health seeking, easy seeking, popularity seeking, and safety seeking type ($p < 0.05$). Also easy seeking and popularity seeking type lifesty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ason to drink carbonated drinks ($p < 0.05$), especially school canteen amenities tended to pursue the highest fashion. A significant significance positive result of the consumption of carbonated beverages ($p < 0.01$) was shown for the easy seeking type. A significant positive result of the consumption of carbonated beverages ($p < 0.01$) was shown for the taste seeking and safety seeking typ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and form factor showed a high correlation coefficient of 0.617 and with brand design, while the taste and the price were ($p < 0.05$) 0.446, and 0.437 in order to design and calories, respectively.

Key words: food-related lifestyle,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behavior

서 론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패스트푸드의 확산 등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음료의 제조사들의 방송이나 각종 매체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청소년들의 음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Kim & Kim 1989; Cho & Kim 1999).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음료의 종류는 탄산음료를 비롯하여 이온음료, 과일주스, 식이섬유음료, 비타민음료, 식혜, 수정과, 커피, 녹차음료 등 매우 다양하며, 그 중 청소년들은 탄산음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 Kim 1999; Kang 등 2006). 탄산음료는 탄산가스를 함유한 음료수를 일

컸는데, 대표적인 탄산음료인 콜라, 사이다 등은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에서 주 음료로 제공되고 있어 그 섭취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Baric 등 2001), 새로운 청소년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Song 등 2005). 탄산음료의 산, 카페인, 당분 성분이 치아의 손상, 뼈 손실, 비만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잉 섭취 시 에너지 과잉 및 영양의 불균형을 야기하며(Kim MS 2005), 또한 과다한 설탕 섭취가 미량원소 결핍, 집중력 결핍 및 충동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Ronald & David 1986).

한편,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 등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는 식생활 양식도 변화하였다. 이

* Corresponding author: Jae-Seon Jang, Dept. of Food & Nutrition, Gachon University, Incheon 406-799, Korea. Tel: +82-32-820-4223, Fax: +82-32-820-4220, E-mail: jangs@gachon.ac.kr

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표현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의 영역이 되고, 인간의 식습관 및 식품 소비 등 식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Lee YG 2007).

식생활 관련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로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와인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성추구형, 안전성추구형, 식료품 충동구매형, 식료품 알뜰구매형, 유행 분위기추구형 유형의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Lim GM 2006),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쌀 가공식품 소비태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식사관리형, 미각추구형, 식품탐험형, 웰빙추구형, 편의추구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Lee HW 2010). Kim & Kwon(2007)은 HMR(Home Meal Replacement)의 선택 속성인 ‘건강지향’, ‘편의지향’, ‘미식가지향’, ‘외식지향’, ‘웰빙지향’, ‘절약지향’ 등 6개의 요인과 식생활 차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 Kim(2010)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한식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추구형’, ‘경제·안전성추구형’, ‘간편성추구형’, ‘미각추구형’의 요인 중 중국소비자들은 ‘간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Kim JY(2008)은 와인을 음용해 본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추구형’, ‘패션·유행추구형’, ‘합리성추구형’, ‘사회성추구형’, ‘향유추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웰빙 라이프스타일이 와인선택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웰빙 라이프스타일이 와인선택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 Lee(2009)는 서울과 부산지역의 와인 소비 경험과 지식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인에 대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웰빙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와인의 지각된 가치와 신뢰, 고객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대학생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형, 안전성추구형, 미각추구형, 유행추구형, 편의추구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외식소비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Jung & Yoon 2007). 주부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고추장 소비형태 분석을 통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분석 결과, 안전추구집단, 편의추구집단, 건강추구집단, 유행추구집단, 미각추구집단의 5개 군집으로 분류하였고(Kim & Kim 2009),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커피전문점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건강추구형, 유행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추구형의 4가지 유형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하였다(Woon YE 2010). 이와 같이 식생활 관련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들의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영역이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식품 표시 관련 변수에 유의한 차이

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탄산음료의 소비 형태를 알아보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탄산음료 소비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음료 선택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2014년 6~7월에 인천지역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균등하게 총 330부 무작위 배포하여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32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자료 11부를 제외하고, 총 307부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Seung HS 2006; Lim GM 2006; Lee HW 2010; Won YE 2010)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구성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자기체중의 만족도와 인식도, 용돈 등 6개의 항목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측정은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를 토대로 하여 25개의 측정문항을 추출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범주 중 한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탄산음료 소비 형태는 선호하는 탄산음료 종류, 섭취 횟수, 섭취량, 섭취장소, 섭취 이유, 구입 장소, 건강에 대한 인식, 탄산음료 소비 시 고려사항 등을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를 하였다.

3. 자료의 통계처리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version 21)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탄산음료의 소비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빈도, 표준편차,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선호하는 탄산음료 종류, 섭취 횟수, 섭취량, 섭취장소, 섭취 이유, 구입 장소,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탄산음료의 소비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내향추구성(맛, 칼로리, 영양)과 외향추구성(가격, 서비스, 브랜드 인식)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군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또한 탄산음료의 선택 기준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p < 0.05$, $p < 0.01$ 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결과, 조사 중학생 전체 307명 중 성별로는 남자 157명(51.1%), 여자 150명(48.9%)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100명(32.6%), 2학년 103명(33.6%), 3학년 104명(33.8%)으로 나타났다. BMI는 저체중, 정상군, 과체중이 각각 35.8%, 49.8%, 14.4%로 정상체중이 가장 많은 반면, 저체중 학생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기 체중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만족한다 133명(43.3%), 만족하지 않다 174명(56.7%)으로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체중의 생각은 적당하다 127명(41.4%), 살찐 편 107명(34.9%), 마른 편 38명(12.4%) 순으로 나타나, 체질량지수가 저체중이 많았으나,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of survey group

Section	Spec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57	51.1
	Female	150	48.9
BMI	Low weight	110	35.8
	Normal	153	49.8
	Over weight	44	14.4
School year	Year 1	100	32.6
	Year 2	103	33.6
	Year 3	104	33.8
Weight satisfaction	Yes	133	43.3
	No	174	56.7
His physique awareness	Very dry side	13	4.2
	Dry side	38	12.4
	Fitness	127	41.4
	Fat side	107	34.9
	Very fat side	22	7.2
One month allowance	Less than fifty thousand won	253	82.4
	Fifty thousand won-one hundred thousand won	48	15.6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won	6	2.0

학생들은 자신이 살찐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한 달 용돈은 5만 원 이하 253명(82.4%), 5만 원에서 10만 원 48명(15.6%), 10만 원 이상 6명(2.0%)으로 나타나, 중학생인 경우 5만 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신뢰성 및 타당성

Table 2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각 문항별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한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항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대체적으로 평균이 3.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 '나는 식품을 살 때 유효기간을 항상 확인한다'는 응답이 3.72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 한다'는 응답도 3.38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0.800로서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으며, 특별히 신뢰도를 저해할만한 문항은 없었다. 크론바하의 알파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탐색적 분석인 경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통상적인 경우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하며, 0.8-0.9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의 크론바하의 알파계수는 0.800로 나타나, Choi 등(2013)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건강기능성 음료 구매특성 연구의 크론바하의 알파계수가 0.791와 Moon & Cho(2012)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녹차 소비형태 연구의 크론바하의 알파계수가 평균 0.7800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상관행렬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반영상관행렬인 KMO 값은 0.800으로 나타나 0.8-0.9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1에 근접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개별 표본수의 적합성 결과,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3,516.902로 나타나, 표본 변수 간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할 만큼 적절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각 문항들이 총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요인 1을 건강추구, 요인 2를 미각추구, 요인 3을 편리추구, 요인 4를 유행추구, 요인 5를 편리추구라 명명하는데 설명된 총 분산은 61.157%로 나타났다.

이는 Moon & Cho(2012)의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추구형, 경제추구형, 유행추구형, 안전추구형으로 구분하였고, Seung HS(2006)은 연구에서 미각추구형, 건강추구형, 편의추구형, 안전추구형, 경제성추구형으로 5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Lim GM(2006)의 연구에서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추구형, 안전추구형, 충동구매형, 알뜰구매형, 유행분위기추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Kim 등(2007)은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유행추구형, 안전성추구형, 분위기추구형

Table 2.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for the food-related lifestyle

Factor name	Factor variable	Item analysis		Item removal Cronbach' α	Component α	Total reliability
		Mean	Standard deviation			
Health seeking type	Go eat a piece of food considered healthy.	2.70	1.01	0.800	0.714	0.800
	The consideration of dietary obesity.	2.76	1.08	0.796	0.635	
	Consider the nutrition you eat.	2.83	1.04	0.786	0.784	
	Try not to eat instant food.	2.94	1.05	0.803	0.509	
	Often use natural foods, health foods, organic foods.	3.07	1.02	0.792	0.490	
Taste seeking type	Look around the house and eat delicious.	2.42	1.07	0.781	0.612	0.800
	Wanted to taste a variety of changing your diet each side.	2.67	1.00	0.785	0.544	
	Tend to prioritize taste than nutrition in food choices.	3.34	0.97	0.802	0.606	
	The piece does not skimp on the diet compared to the other sectors.	2.92	1.08	0.790	0.530	
	Tend to feel better in the taste difference.	3.36	1.00	0.790	0.494	
Easy seeking type	The purchase is often the department stores, super cooked food.	2.55	1.04	0.798	0.521	0.800
	The favorite part of the meal as meal preparation and time spent.	2.58	0.94	0.798	0.649	
	When you are busy and often resolve with meals such as bread, milk.	3.10	1.15	0.801	0.479	
	Relatively busy to eat out often.	2.19	1.02	0.794	0.591	
	If you tend to eat alone in the house a lot of snacks.	3.19	1.09	0.799	0.442	
Popularity seeking type	I like to see a new food to eat.	3.38	1.07	0.789	0.666	0.800
	Even the first time you see delicious looking food purchases.	2.98	1.10	0.797	0.649	
	The acceptance of fast food and fashion pieces.	2.93	0.97	0.788	0.602	
	For fast and try to eat around the food.	2.90	1.01	0.785	0.648	
	The home side who knows what delicious food and trendy.	2.55	0.97	0.781	0.633	
Safety seeking type	Always check the validity when buying food.	3.72	1.14	0.796	0.643	0.800
	Check the ingredients of the content when they buy food.	2.93	1.11	0.793	0.850	
	Make sure you buy a food additive food.	2.95	1.10	0.791	0.854	
	Do not buy the company does not know the product well.	2.91	1.08	0.791	0.573	
	I prefer a product that is clearly separated uses.	3.34	0.93	0.794	0.570	

KMO=0.800, Bartlett sphericity test=3,516.902, p value=0.000, The total variance=61.157%

으로 구분하여 요인분석 결과, 누적 설명력이 53.87%가 나타났으며, Oh & Kim(2012)의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커피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 외식추구, 맛추구, 계획구매추구, 편리성추구로 구분하여 얻은 값과 유사한 결과를 얻은 반면, Lim & Yoon(2006)의 연구에서 주부의 식생활양식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비합리형, 실용적 안정형, 진보적 활동형으로 구분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3. 탄산음료 소비행태에 따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차이

탄산음료 소비행태에 따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호하는 탄산음료의 종류

는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리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구체적으로 콜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미각과 유행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저탄산음료인 경우는 건강추구와 안전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탄산음료 선호도에서는 건강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05$), 특히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미각추구 성향을 나타낸 반면, 매우 싫어하는 경우는 건강추구와 안전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탄산음료의 섭취 횟수는 건강추구, 편의추구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즉, 탄산음료의 섭취횟수가 1일 3회 이상인 경우, 유행추구와 미각추구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높은 반면, 주 1~2회인 경우는 건강추구와 안전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탄산음료를 마

Table 3. Difference of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pattern according to food related lifestyle

		Health seeking	Taste seeking	Easy seeking	Popularity seeking	Safety seeking
Main consumed category	Coke	2.72±0.87 ^{ab}	3.08±0.70 ^{ab}	2.83±0.65 ^{ab}	3.14±0.73 ^{ab}	3.05±0.84 ^{ab}
	Cider	2.96±0.67 ^a	2.91±0.60 ^a	2.79±0.64 ^{ab}	2.96±0.70 ^{ab}	3.19±0.62 ^a
	Flavored carbonated beverage	2.91±0.64 ^a	2.92±0.67 ^a	2.68±0.55 ^a	2.84±0.88 ^a	3.03±0.75 ^a
	Low carbonated beverage	3.07±0.87 ^b	2.67±0.76 ^b	2.38±0.61 ^b	2.53±0.70 ^b	3.60±0.95 ^b
	<i>F</i> ratio	3.186*	4.868*	7.225*	9.287*	6.776*
Carbonated beverage preference	Like very much	2.47±0.86 ^b	3.05±0.75 ^a	2.88±0.68 ^{ab}	3.18±0.72 ^{ab}	2.89±0.81 ^{ab}
	Like	2.87±0.81 ^a	3.03±0.73 ^a	2.85±0.57 ^a	3.05±0.77 ^a	3.13±0.80 ^a
	Moderate	2.99±0.66 ^{ab}	2.85±0.61 ^a	2.62±0.62 ^a	2.83±0.71 ^a	3.33±0.70 ^b
	Dislike	2.97±0.90 ^a	2.89±0.83 ^a	2.20±0.58 ^b	2.46±0.92 ^b	3.28±1.12 ^b
	Extremely dislike	3.27±0.80 ^a	2.57±0.69 ^a	2.20±0.86 ^a	2.55±0.77 ^b	3.08±1.51 ^a
<i>F</i> ratio	4.743*	1.865	6.972*	4.688*	2.736*	
Intake frequency	1 more than three times a day	2.87±0.66 ^a	3.47±0.94 ^a	2.94±0.57 ^a	3.50±0.98 ^a	3.16±0.87 ^a
	Twice a day	2.45±0.83 ^a	2.89±0.54 ^a	2.89±0.30 ^a	3.08±0.69 ^a	2.93±0.78 ^a
	Once a day	2.67±0.92 ^a	3.09±0.80 ^a	3.07±0.59 ^{ab}	2.97±0.82 ^a	3.08±0.81 ^a
	3~5 times a week	2.83±0.78 ^a	2.90±0.71 ^a	2.66±0.60 ^b	2.92±0.87 ^a	3.08±0.97 ^a
	1~2 times a week	2.95±0.78 ^a	2.90±0.66 ^a	2.64±0.60 ^b	2.90±0.71 ^a	3.02±0.78 ^a
<i>F</i> ratio	2.430	2.213	4.100*	1.801	1.043	
Intake case	School canteen	3.00±0.56 ^a	3.30±0.87 ^a	3.55±0.52 ^{ac}	3.55±0.52 ^a	3.65±0.47 ^a
	When you become a friend	2.97±0.88 ^a	2.96±0.81 ^a	2.90±0.79 ^b	2.90±0.79 ^b	3.33±0.75 ^a
	When you eat fast food	2.84±0.77 ^a	2.94±0.66 ^a	2.68±0.61 ^b	2.96±0.72 ^b	3.14±0.81 ^a
	Instead of water in the house	2.47±0.87 ^a	3.08±0.52 ^a	2.88±0.39 ^{bc}	3.30±0.91 ^{ac}	2.81±0.68 ^a
	Other	3.07±0.78 ^a	2.63±0.85 ^a	2.18±0.76 ^c	2.44±0.90 ^c	3.27±1.22 ^a
<i>F</i> ratio	1.699	1.329	6.387*	3.611*	1.868	

Value are Mean±S.D.

^{a-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시는 경우는 편의추구와 유행추구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 < 0.05$), 특히 학교 매점인 경우 편의추구와 유행추구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ark JH(2012)의 연구에서는 탄산음료 중 콜라의 선호도가 36.3%로 높게 나왔고, Son EJ(2010)은 탄산음료 중 콜라 46.3%, 사이다 21.6%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rk JY(2008)는 '착향탄산음료'의 섭취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반면, Choi EN(2013) 연구결과 탄산음료 선호도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사이다(33.6%), 콜라(27.6%), 착향탄산음료(22.8%), 저탄산음료(10%), 기타(6%)의 순으로 사이다를 섭취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콜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4.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탄산음료의 소비형태와의 관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5가지 요인인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와 탄산음료의 소비형태의 요

인인 맛, 칼로리, 영양을 고려한 내향추구성과 가격, 서비스,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한 외향추구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5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탄산음료의 소비형태 요인 중 내향추구성(맛, 칼로리, 영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5가지 요인인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와 탄산음료 소비형태의 요인 중 내향추구성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R^2 = 0.084$, $F = 5.499$ 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유행추구($\beta = 0.172$, $p < 0.05$)는 탄산음료의 소비형태 특성 중 내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추구($\beta = -0.188$, $p < 0.05$)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유행추구형이 높을수록 구매 성향을 나타낸

Table 4. Internal characteristics of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and food-related lifestyle factors

	B	Beta	t	p value
Constant	9.206		9.833	0.000
Health seeking type	-0.566	-0.188	-3.027	0.003*
Taste seeking type	0.244	0.065	0.913	0.362
Easy seeking type	-0.064	-0.017	-0.259	0.796
Popularity seeking type	0.571	0.172	2.466	0.014*
Safety seeking type	0.226	0.077	1.247	0.213

The dependent variable=Internal characteristics of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R^2=0.084$, $F=5.499$

* $p<0.01$

반면, 건강추구형인 경우는 탄산음료의 구매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탄산음료의 소비형태 요인 중 외향추구성(가격, 서비스, 브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에 대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5가지 요인인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와 탄산음료 구매특성의 요인 중 내향추구성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084$, $F=5.499$ 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미각추구($\beta=0.187$, $p<0.01$)와 안전추구($\beta=0.142$, $p<0.01$)가 탄산음료의 구매특성 중 외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미각추구가 높을수록 탄산음료의 구매특성 요인 중 외향추구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등(2013)은 건강기능성 음료 구매특성에 대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미각추구형과 건강추구형이 높을수록 내향추

Table 5. External characteristics of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and food-related lifestyle factors

	B	Beta	t	p value
Constant	4.130		2.965	0.003
Health seeking type	0.146	0.033	0.526	0.599
Taste seeking type	0.962	0.187	2.641	0.009*
Easy seeking type	0.442	0.079	1.211	0.227
Popularity seeking type	0.060	0.013	0.175	-0.861
Safety seeking type	0.621	0.142	2.307	0.022*

The dependent variable=External characteristics of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R^2=0.084$, $F=5.499$

* $p<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purchase of carbonated beverage

Section	Taste	Flour	Price	Calories	Design	Brand
Taste	-					
Flour	0.420**	-				
Price	0.446**	0.342**	-			
Calories	0.057	0.377**	0.155**	-		
Design	0.187**	0.321**	0.127*	0.437**	-	
Brand	0.247**	0.360**	0.232**	0.377**	0.617**	-

* $p<0.01$, ** $p<0.05$

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Oh & Kim(2012)의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커피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건강추구, 외식추구, 맛추구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 식품은 다르나, 본 연구 대상인 중학생인 경우, 탄산음료의 구매 요인 중 유행추구가 내향성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각과 안전추구가 외향성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중학생들의 탄산음료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산음료 선택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디자인과 브랜드의 상관관계 값이 0.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0.05). 이는 중학생들이 탄산음료에 대한 구매 정보는 주로 메스컴을 통해 얻으며, 또한 탄산음료 선택 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이 좋은 것으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로 탄산음료의 선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Choi EN(2013)의 연구결과, 탄산음료 선택에서 맛(66.8%), 가격(20.4%) 순으로 나타나, 맛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rk JY(2008)의 연구에서도 맛이 68.8%로, Kim HJ(2004)의 연구결과 맛이 30.8%, 가격이 17.0%로 높게 나타난 반면, Park JH(2012)의 연구에서는 맛이 60.6%, 가격이 25.5%, 저렴한 가격 10.8%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인 경우, 탄산음료를 소비할 때 가격과 맛, 브랜드와 디자인을 보고 소비하는 경향을 나타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맛이 없으면 잘 먹으려 하지 않는 본능 때문으로 탄산음료에 대한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탄산음료의 구매 형태를 알아보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탄산음료 소비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음료 선택에 있

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결과, 성별로는 남자 157명(51.1%), 여자 150명(48.9%), 학년은 1학년 100명(32.6%), 2학년 103명(33.6%), 3학년 104명(33.8%)으로 나타났다. BMI는 저체중, 정상군, 과체중이 각각 35.8%, 49.8%, 14.4%로 나타났으며, 자기 체중의 생각은 적당한 편 127명(41.4%), 살찐 편 107명(34.9%), 마른 편 38명(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용돈은 5만 원 이하 253명(82.4%), 5만 원에서 10만 원 48명(15.6%), 10만 원 이상 6명(2.0%)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문항별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평균은 3.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중 '나는 식품을 살 때 유효기간을 항상 확인한다'는 응답이 3.72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전체 신뢰도인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800로서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다.

3. 탄산음료 소비 형태에 따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탄산음료의 종류는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리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탄산음료 선호도에서는 건강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 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특히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미각추구 성향을 나타낸 반면, 매우 싫어하는 경우는 건강추구와 안전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탄산음료의 섭취횟수는 건강추구, 편의추구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는 편의추구와 유행추구 라이프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탄산음료의 소비형태의 요인을 내향추구성파 외향추구성파의 회귀분석 결과 내향추구성인 경우 $R^2=0.084$, $F=5.499$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외향추구성인 경우 $R^2=0.084$, $F=5.490$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중학생들의 탄산음료 선택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과 브랜드의 상관관계수 값이 0.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맛과 가격이 0.446, 디자인과 칼로리 0.437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중학생들이 탄산음료에 대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이 좋은 것으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로 탄산음료의 선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Baric IC, Cvjetic S, Satalic Z. 2001. Dietary intakes among croatian 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Nutrition and Health* 15:127-138
- Cho HS, Kin YO. 1999. The study on Korean youth's status of beverage consumption and preference on beverage on Chunnam area. *Korean J Food & Nutr* 12:536-542
- Choi EN. 2013. Study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and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rea. MS Thesis, Gungook Univ. Seoul. Korea
- Choi W, Choi JY, Yon HS. 2013. A study on purchasing characteristics on health functional beverage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 *J Hotel & Resor* 12:179-196
- Jung HS, Yoon HH. 2007. A study on the dining-out consumption pattern of undergraduates by food-related lifestyl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0:93-117
- Kang BS, Park MS, Cho YS, Lee JW. 2006. Beverage consump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in the Chungnam urban area. *Korean J Community Nutr* 11:469-478
- Kim BJ, Kim IS. 1989. Study on the status on beverage consumption of middle and high students. *J Korean Home Economica Association* 20:79-87
- Kim HJ. 2004. The survey of beverage preference and sales trends.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 Seoul. Korea
- Kim JY. 2008. Study on the effect of well-being lifestyle toward wine selection attributes. *Tourism Research* 26:19-34
- Kim KH, Kim KM. 2010. A study on Chinese consumers' Korean food consumption behavior based on food-related lifestyle. *Food Distribution Research* 27:41-62
- Kim MJ, Jung HS, Yoon HY.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ood-related lifestyle on undergraduates and the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 *K J Food Culture* 22:210-217
- Kim MS. 2005. A study for eat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2).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21:125-138
- Kim NR, Kim HJ. 2009. A study on the consumption behaviors regarding red pepper paste according to the food-related lifestyles of housewive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 1-8
- Kim SH, Kwon SM. 2007. The study on selection attributes and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HMR (home meal replacement) customers' lifestyle. *J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25: 16-30
- Lee HW. 2010. Consumers attitude toward rice processed foods based on food-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Yeonsei Univ. Seoul. Korea
- Lee YG. 2007. A study on food purchase behavior according to wife's food 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Sungkyunkwan Univ. Seoul. Korea
- Lim GM. 2006. A study on the wine choice pattern by food-

- 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Kyung Hee Univ. Seoul. Korea
- Lim YM, Yoon HH. 2006. A study on the food-related lifestyle to wine selection attribution. *Tourism Research* 20:289-300
- Moon YS, Cho HS. 2012. A study on the green tea consumption behavior depending on the food-related lifestyle. *Life & Science* 15:79-98
- Oh YG, Kim KJ. 2012. A study on the effects fo food-related lifestyle on coffee consumption behavior. *Asia-Pacific J Business Venturing & Entrepreneurship* 7:65-75
- Park JH. 2012. Study on the intake and perception of carbonated beverag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area. Master Degree Thesis, Kyungnam Univ. Kyeongsangnamdo. Korea
- Park JY. 2008.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intake of carbonated beverage in the Daegu area. Master Degree Thesis, Yeongnam Univ. Kyeongsangbugdo. Korea
- Park JY. 2011. A study on purchasing behavior of salad dressing purchases according to the food-related lifestyles of housewives. Master Degree Thesis, Kyung Hee Univ. Seoul. Korea
- Ronald JP, David BR. 1986. Association between nutrition and behavior in five year old children. *Nutr Rev* 44:231-240
- Seung HS. 2006. A study on the bakery markets consumption pattern by food-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Ewha Univ. Seoul. Korea
- Song EJ. 2010. Use and understanding of nutrition label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dietary factors among adolescents from junior and high schools: In Gyoungbuk area. Master Degree Thesis, Kyunghee Univ. Seoul. Korea
- Song JG, Lee JE. 2009. A study of the effect of well-being life style perceived wine value on trust, customer satisfaction. *J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4:213-229
- Song MJ, An EM, Shon HS, Kim SS, Cha YS. 2005, A study on the status of beverage consump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Jeonju. *Korean J Community Nutr* 10:174-182
- Woon YE. 2010. A study on the specialty coffee shop selection attributes by the food-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Joongang Univ. Gyeonggido. Korea

Received 19 September, 2014

Revised 31 October, 2014

Accepted 1 November, 2014